

“원도심 활성화” 완도군, 도시재생사업 박차

국토부 공모사업 활용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등 추진 보행환경 개선, 집수리·빈집 철거, 시장 활성화 등 진행

완도군이 완도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해 군 관곽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군은 먼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2억원을 투입, 용암리와 서성리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옛 문화원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입, 리모델링 후 완도군

청소년상담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34억원을 들여 완도읍 중앙마을(중앙·주도·서성·용암리)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중심 상권 활성화, 주민을 위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2개소, 빈집 철거 3개소를 완료했으며 기존에 조성돼 있는 소공원과 주차장에는 태양광과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용암리와 서성리에는 CCTV 등을 설치해 안심 골목을 조성할 방침이다.



완도군이 옛 문화원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상담센터(왼쪽)로 활용, 중앙시장 A동을 철거해 통합 공공건물(오른쪽)을 신축할 예정이다.

군은 중앙시장의 A동을 매입, 철거했으며 통합 공공건물을 신축해 창업 활동을 원하는 관내 청·장년에게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상인과 방문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시장의 주요 상품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로컬푸드 음식점(아외포차) 조성으로 전통시장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

철거된 청계시장 대신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고 낙후된 가로경관 정비, 불거리 제공



(완도군 제공)

등 활력을 불어 넣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군내리에 있는 옛 대중의원 부지에는 각종 수목 식재, 의자와 정자 설치, 돌길과 휴길 등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힐링 쉼터’를 조성했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사업과 해양치유,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과도 연계해 관광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시, 성숙한 반려문화 ‘펫티켓’ 당부

4월 동물보호법 개정…반려인 대상 홍보 “동물보호감시단 통해 지속적 지도·단속”

목포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강화된 의무사항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시절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기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용 공간에 준수해야 추가되고,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외출 시 목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동물보호감시단을 구성·운영해 공원 등 민원다발지역에서 펫티켓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왔다. 또한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동물보호

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반려견 유기·유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영업장과 협업으로 동물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펫티켓 홍보, 반려동물 유기방지 캠페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동물 보호·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주민이 만든 ‘진도 옥주골 마을축제’ 눈길

옛 진도우체국 리모델링 ‘놀이터’ 조성…원도심 활성화 기여

진도 주민이 직접 만든 ‘옥주골 마을축제’가 원도심을 활성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추진된 ‘옥주골 어울림센터 열림식’과 주민이 직접 만드는 진도형 도시재생 마을축제인 ‘옥주골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의 첫 번째 거점공간인 옥주골 어울림센터는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해 조성됐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옛 진도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에는 ‘옥주골 하호호놀이터(사진)’를 마련했다. 해당 놀이터는 지역 초등학생 20명이 어린이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기초 설

계과정에 참여, 공간을 형성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울림 프리마켓, 어울림 소풍마당,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어린이 디자인단·포마해설사 결과물 전시, 도시재생대학 분과·문화예술아카데미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옥주골 마을축제를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일반근린형인 진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진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무안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1억 이상 주요 사업 진행 현황·추진 계획 등 점검

무안군은 “최근 군정상황실에서 전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회의에서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2천312억원과 2분기 소비 투자 분야 목표액 1천70억원 달성을 위해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진행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집행을 제고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공정을 상시 관리하고 선금, 기성금 등 중간 지급과 재료비선

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공공사업의 추진은 침체한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라며 “군정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각각 우수·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총 2억2천만원의 사업비와 1천20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신안 퍼플섬, 벼들마편초로 ‘보랏빛’ 물들다

내일 ‘2023 벼들마편초꽃 축제’…8월에도 여름 꽃축제 등

신안군 퍼플섬이 벼들마편초로 인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사진)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사계절 보라꽃이 오감을 자극하는 퍼플섬에서 10일 ‘2023 벼들마편초꽃 봄축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퍼플섬 벼들마편초꽃 축제’가 개최된다.

벼들마편초는 마편초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벼들잎처럼 좁은 잎모양 형태와 긴 꽃대 끝에 꽃이 달려서 ‘마편’, 즉 말채찍처럼 생겼다 해서 벼들마편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개화기간이 길어 퍼플섬에 안성맞춤인 꽃이다.

현재 퍼플섬에는 3만9천㎡ 부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2천만송이의 벼들마편

초가 만개했으며, 해안산책로를 따라 퍼플섬 곳곳에 피어있는 벼들마편초꽃은 섬을 일주하는 관광객들을 동화적인 아름다움에 매료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퍼플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보라색의 향연에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섬으로 간직되길 바란다”며 “다시 찾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퍼플섬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퍼플섬에서는 8월 벼들마편초 여름꽃축제, 9월 아스타 꽃축제가 있을 예정이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군 “초등생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

올해부터…해남군 교육재단 출범 첫 사업

해남군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 대해 입학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한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남군 교육재단(사진) 설립 이후 첫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입학 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0~30일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을 놓쳤을 시에는 해남군 교육재단(061-530-5981)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입학 학생의 친권자 또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타지역(관외) 학교로 전학 간 경우와 타지역에서 입학한 후 관내 학교로 전학 온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해남군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총 314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해남군 교육재단이 낫을 올린 이후 추진한 본격적인 사업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이라는 비전으로 올해 2월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교육 전담 지원 기관으로 장학사업, 초·중·고 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 성인 문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해남군평생학습관 1층에 사무실을 리모델링 중으로, 7월 중 전담 조직 인력을 갖추고 사무실을 개소한다.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생·청소년 안전과 신산업 분야의 교육 시책사업, 학부모·자녀간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육재단의 설립으로 교육도시 해남의 청사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첫 사업인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철용기자

함평군,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 ‘총력’

이달 내 축산농가 지붕에 열 차단재 도포…면역증강제 공급도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함평군이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8일 함평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내 관내 30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붕 열 차단재 도포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은 친환경 열차단재를 지붕에

도포해 축사 내 열기 축적을 방지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예방한다.

군은 고온에 취약한 축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면역증강제도 공급할 방침이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올해 여름 수시로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 피해 예방 요령을 전파해 축산 농가의 폭



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